

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, 폭염기간 온열질환 예방 현장 안전점검

✎ 이지효 기자 | ⓒ 승인 2025.08.24 14:26

온·습도계 비치 여부, 충분한 소금·얼음 제공 등 살펴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보은군 수한면 울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점검을 실시했다. /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

[중부매일 이지효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(본부장 최현수)는 지난 22일 충북 보은군 수한면 울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폭염기간 온열질환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.

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 31°C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하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염작업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.

현장을 방문해 작업 전 안전회의(TBM) 활동을 통해 온열질환의 건강증상과 예방 조치 등이 근로자들에게 잘 전달됐는지 확인했다. 또한 작업장소에 온·습도계가 비치돼 있는지,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이 제공되고 있는지, 그리고 가까운곳에 그늘진 장소(그늘막 등)와 적절한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 등 온열질환 예방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.

최현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본부장은 “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관내 모든 공사현장에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다시 한번 지켜주기를 당부한다”며 “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지효 기자 jhlee@jbnews.com